통계청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6. 16.(금) 12:00 배포 2023. 6. 16.(금) 08:30

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

- 65세 이상 고령자를 **65~74세, 75세 이상으로 세분하여 분석** -

통계청(청장 한훈)은 베이비붐 세대(1955년~1963년, 7백만명)의 고령층 진입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* 대응을 위해 **65세 이상 고령자를 65~74세, 75세 이상으로 세분**하여 **지난 10년간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**를 분석하였다.

* 고령자 비중(14%→20%) 도달연수

일 본: 10년 (1994년→2004년) 프랑스: 39년 (1979년→2018년)

한 국: 7년 (2018년→2025년 예상) 미 국: 15년 (2014년→2029년 예상)

고령자와 관련된 많은 자료가 **65세 이상을 기준**으로 작성되고 있으나, 본 보도자료에서는 고령자를 **65~74세, 75세 이상으로 세분하여** 인구·가구, 건강, 노동·일자리, 소득, 참여, 노후 부문별로 **다양한 유사점과 차이점**을 살펴보았다.

1. 인구・가구

○ **(인구)** '37년 7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전체인구의 16.0%로, 65~74세 인구(15.9%)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

○ **(교육정도)** '20년 고졸 이상 비중이 65~74세는 49.3%, 75세 이상은 22.8%이며, 10년 전보다 65~74세의 고졸 이상 비중은 21.7%p 증가

2. 건강

○ **(기대여명)** '21년 65세 기대여명은 21.6년, 75세 이상은 13.4년으로, 10년 전보다 각각 2.2년, 1.6년 증가

○ **(건강평가)** '22년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65~74세는 32.8%, 75세 이상은 18.9%이며, 10년 전보다 9.9%p, 5.2%p 각각 증가

3. 노동·일자리

○ **(취업의사)** ‘22년 65~74세 59.6%가 장래 근로를 희망하였고, 75~79세는 39.4%이며, 10년 전보다 11.9%p, 11.8%p 각각 증가

○ **(일자리 선택기준)** ’22년 65~74세, 75~79세 모두 일의 양과 시간대가 각각 33.5%, 43.1%로 가장 높았으며, 10년 전보다 5.7%p, 5.6%p 각각 증가

4. 소득

○ **(생활비마련)** ’21년 65~74세는 근로·사업소득(54.2%), 75세 이상은 연금·퇴직급여(42.4%)가 가장 높았음

○ **(공적연금)** ’21년 65~74세, 75세 이상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각각 62.3%, 45.1%이며, ’13년보다 9.8%p, 27.0%p 각각 증가

5. 참여

○ **(계층의식)** ’21년 자신의 사회·경제적 지위가 ‘상’ 또는 ‘중’이라고 생각하는 65~74세는 53.2%, 75세 이상은 41.0%로 10년 전보다 10.5%p, 6.1%p 각각 증가

○ **(인터넷이용률)** ’21년 60대 94.5%, 70대 이상은 49.7%로, ’15년보다 34.9%p, 31.8%p 각각 증가

6. 노후

○ **(노후준비)** ’21년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65~74세는 66.8%이고, 75세 이상은 42.7%이며, 준비 방법은 공적연금이 가장 많았음

○ **(장례방법)** ’21년 65~74세의 85.8%, 75세 이상의 75.8%가 선호하는 장례방법으로 화장을 선택

한훈 통계청장은 “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**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 구성원(개인·가족·정부)의 역할과 관심도를 제고하고, 고령자에 대한 체계적·생산적인 정책 수립 및 지원**에 활용되길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경희 (042-481-2233)
		담당자	사무관	장수안 (042-481-224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

일 러 두 기

□ 통계청에서는 급속한 고령화 대응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를 65~74세, 75세 이상으로 세분하여 고령자의 특성 및 의식변화를 분석한 기획보도를 작성하였습니다.

□ 인용된 각 통계의 특성에 따라 연령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< 연령 기준이 다른 통계 >

ㅇ「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」, 통계청: 65～74세, 75～79세
ㅇ「가계금융복지조사」, 통계청·한국은행·금융감독원
  -「상대적 빈곤율」 66～75세, 76세 이상
ㅇ「인터넷이용실태조사」, 과학기술정보통신부: 60대, 70세 이상

□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□ 이 보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(http://kostat.go.kr)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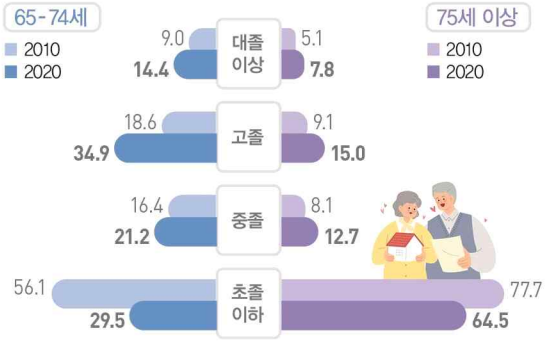
고령자의 특성과 의식변화

통계청

인구·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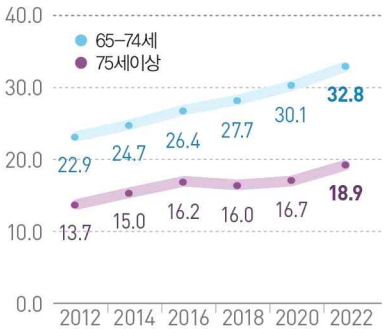
연령층별 고령인구 비중 (단위: %)

교육정도별 고령인구 비중 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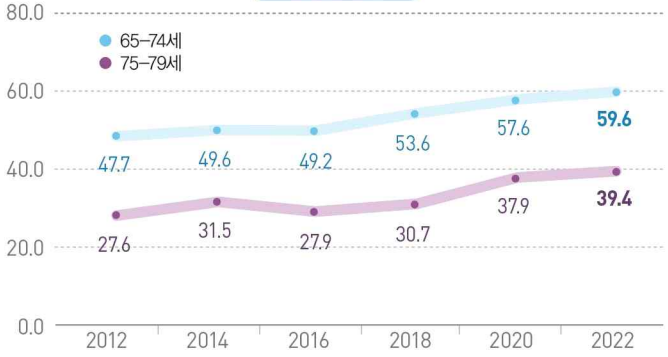
건강

주관적 건강상태(좋음)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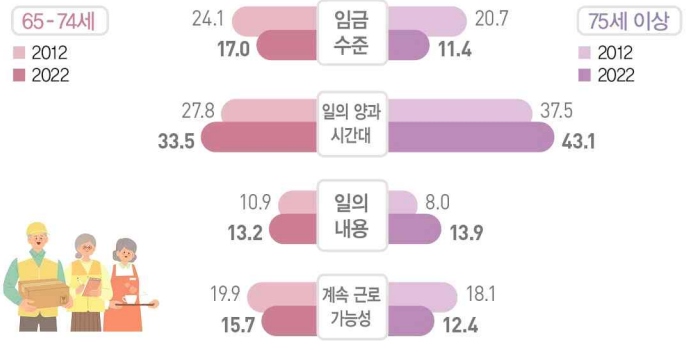


노동·일자리

취업의사 (단위: %)



일자리선택기준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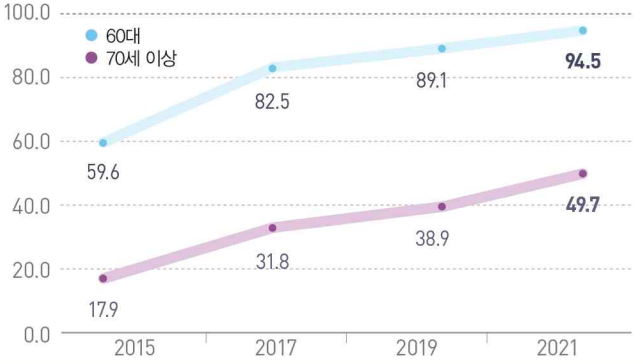


소득

공적연금수급률 (단위: %)

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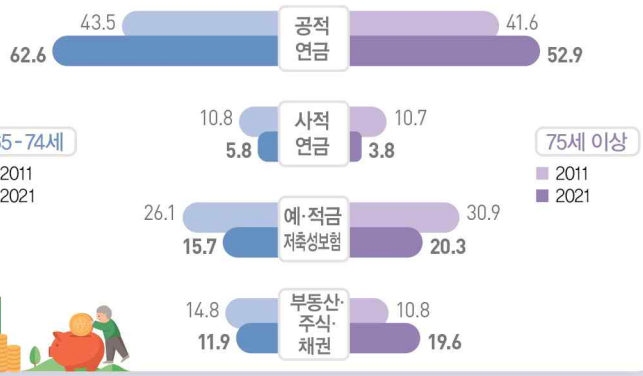
인터넷이용률 (단위: %)



노후

부모부양 (단위: %)

노후준비 방법 (단위: %)



목 차

Ⅰ. 인구 · 가구 ····· 1

Ⅱ. 건강 ····· 4

Ⅲ. 노동 · 일자리 ····· 7

Ⅳ. 소득 ····· 10

Ⅴ. 참여 ····· 13

Ⅵ. 노후 ····· 15

Ⅰ. 인구 · 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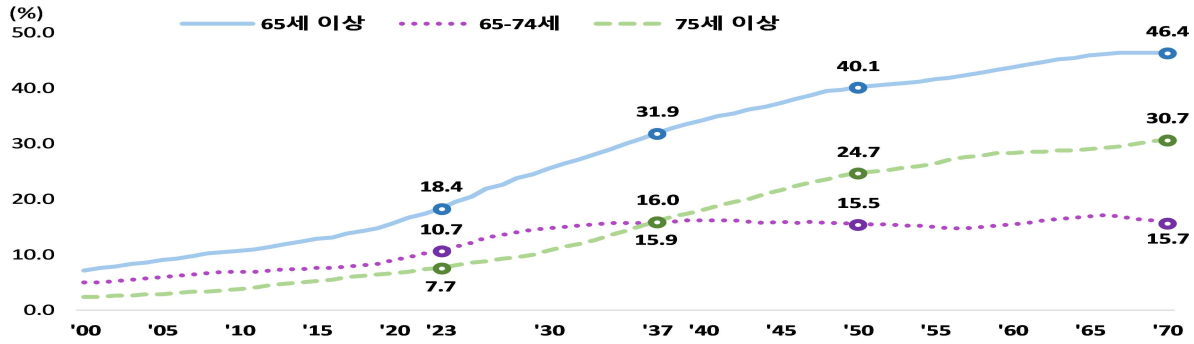
1. 인구 추이

'37년을 기점으로 75세 이상 고령인구가 65~74세 인구보다 많아지고,
'70년에는 OECD 주요국 중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됨

□ **(인구 추이)** '23년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8.4%이고, '37년에는 31.9%, '70년이 되면 46.4%가 될 것으로 전망됨

○ '23년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7.7%로 65~74세(10.7%)보다 적지만, '37년에는 16.0%로 65~74세(15.9%) 인구보다 많아지고, '70년에는 30.7%가 될 것으로 전망됨

< 고령자 연령대별 인구 비중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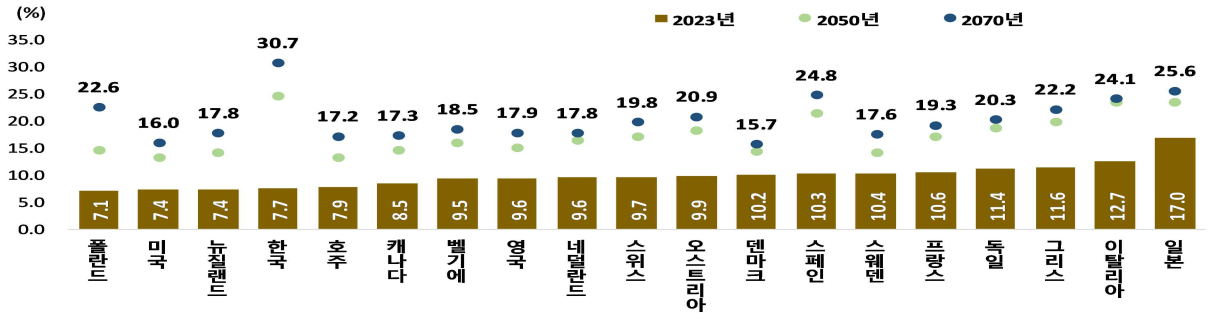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「장래인구추계: 2020~2070년」

□ **(국제 비교)** '23년 OECD 주요 회원국의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미국 7.4%, 영국 9.6%, 이탈리아 12.7%, 일본 17.0%, 우리나라 7.7%임

○ '70년 우리나라의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30.7%로 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됨

* 일본 25.6%, 스페인 24.8%, 이탈리아 24.1%, 폴란드 22.6%, 미국 16.0%

< OECD 주요 회원국 75세 이상 인구 비중 >



자료: 통계청「장래인구추계: 2020~2070년」, UN「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」

2. 교육정도 및 혼인상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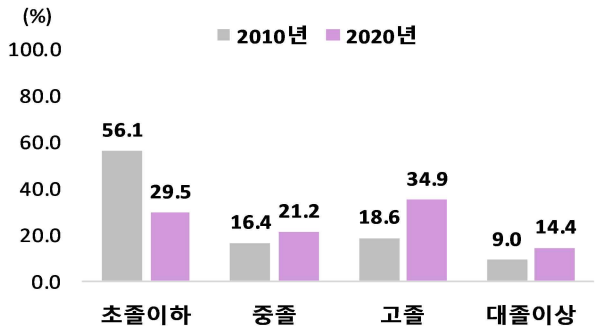
'20년 65~74세의 49.3%, 75세 이상 고령자의 22.8%는 고졸 이상이며, 10년 전보다 각각 21.7%p, 8.6%p 증가

□ **(교육정도)** '20년 65~74세의 49.3%는 고졸 이상, 29.5%는 초졸 이하이고, 75세 이상 고령자의 64.5%는 초졸 이하, 22.8%는 고졸 이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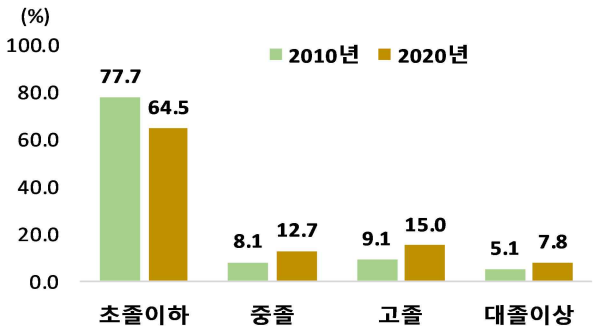
○ 10년 전보다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 모두 초졸 이하는 감소한 반면, 고졸 이상은 증가함

* 10년 전보다 65~74세 고령자 중 고졸 이상은 21.7%p 증가함

< 교육정도 (65~74세) >



< 교육정도 (75세 이상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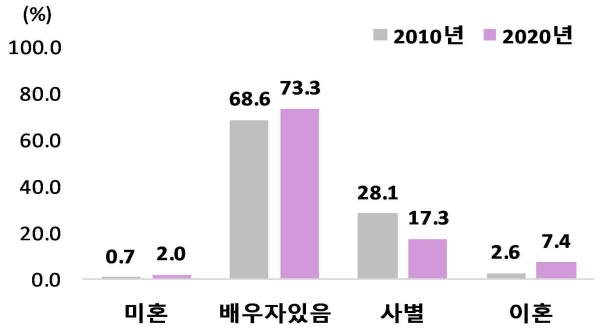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「인구주택총조사」
주1)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만 집계
주2) 최고학력 졸업여부를 기준으로 집계

□ **(혼인상태)** '20년 65~74세의 73.3%는 배우자가 있고 17.3%는 사별하였으며, 75세 이상 고령자의 49.2%는 배우자가 있고 47.3%는 사별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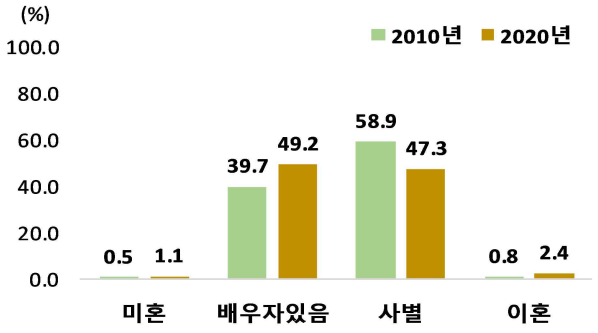
○ 10년 전보다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 모두 배우자가 있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, 사별은 10%p 이상 감소함

* 10년 전보다 이혼은 65~74세 4.8%p, 75세 이상 1.6%p 각각 증가함

< 혼인상태 (65~74세) >



< 혼인상태 (75세 이상) >



자료: 통계청「인구주택총조사」
주1)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만 집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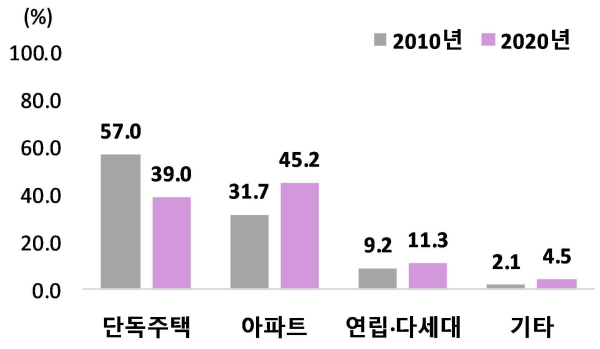
3. 주거유형 및 점유형태

'20년 아파트 거주 비중은 65~74세는 45.2%, 75세 이상은 37.2%이며, 10년 전보다 13.5%p, 11.4%p 각각 증가하였고, 점유형태는 전세는 감소, 월세는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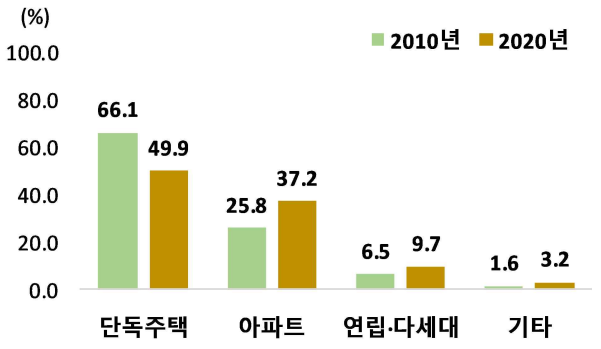
□ **(주거유형)** '20년 65~74세의 45.2%는 아파트, 39.0%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며, 75세 이상 고령자의 49.9%는 단독주택, 37.2%는 아파트에 거주함

○ 10년 전보다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 모두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감소하였고, 아파트 거주 비중은 증가함

< 주거유형 (65~74세) >



< 주거유형 (75세 이상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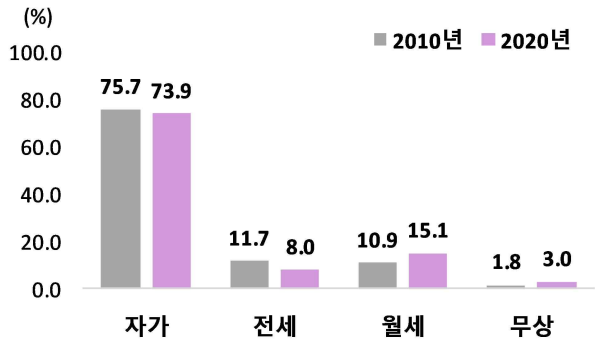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「인구주택총조사」
주1) 일반가구 대상, 가구주 연령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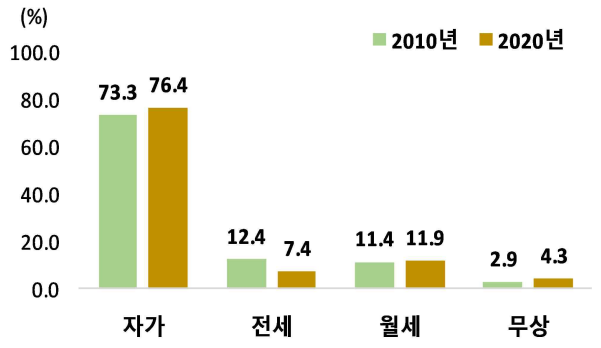
□ **(점유형태)** '20년 65~74세의 73.9%는 자가, 15.1%는 월세로 거주하며, 75세 이상 고령자의 76.4%는 자가, 11.9%는 월세로 거주하고 있음

○ 10년 전보다 65~74세는 자가, 전세 비중은 감소한 반면, 월세 비중은 증가하였고, 75세 이상은 자가 비중은 증가한 반면, 전세 비중은 감소함

< 점유형태 (65~74세) >



< 점유형태 (75세 이상) >



자료: 통계청「인구주택총조사」
주1) 일반가구 대상, 가구주 연령기준
주2) '월세'는 보증금 있는 월세, 보증금 없는 월세, 사글세의 합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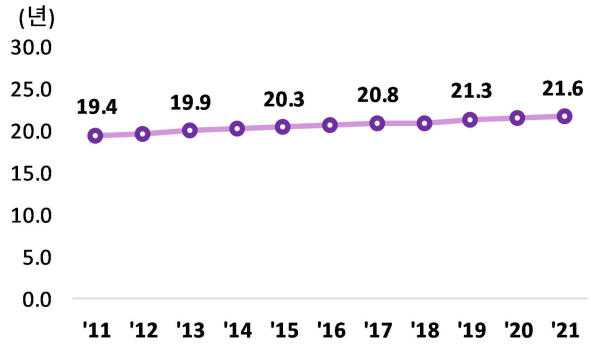
Ⅱ. 건강

1. 기대여명 및 사망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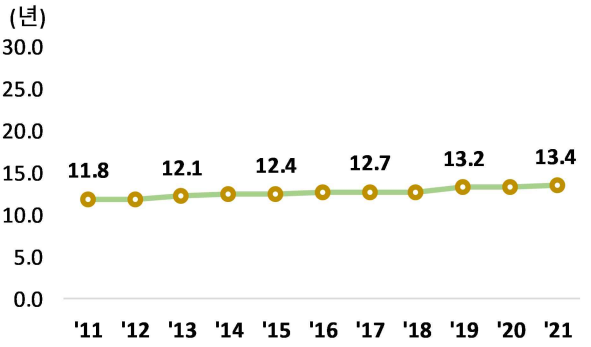
'21년 65세 기대여명은 21.6년, 75세는 13.4년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2.2년, 1.6년 증가하였고,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(암), 심장질환 순임

□ **(기대여명)** '21년 65세와 75세의 기대여명은 각각 21.6년, 13.4년이고 10년 전보다 65세는 2.2년, 75세는 1.6년 증가함

< 기대여명 (65세) >



< 기대여명 (75세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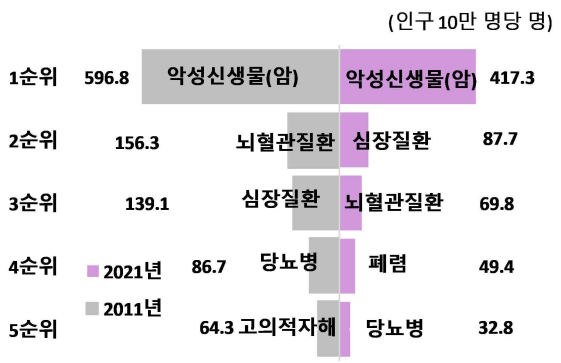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「생명표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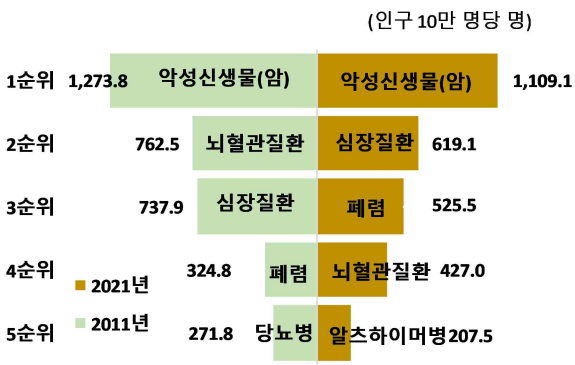
□ **(사망원인)** '21년 65~74세의 해당인구 10만 명당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는 악성신생물(암) 417.3명, 심장질환 87.7명 순이고, 75세 이상은 악성신생물(암) 1,109.1명, 심장질환 619.1명 순임

○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10년 전보다 악성신생물(암), 심장질환, 뇌혈관질환 등은 감소하였으나, 폐렴은 증가함

< 사망원인 (65~74세) >



< 사망원인 (75세 이상) >



자료: 통계청「사망원인통계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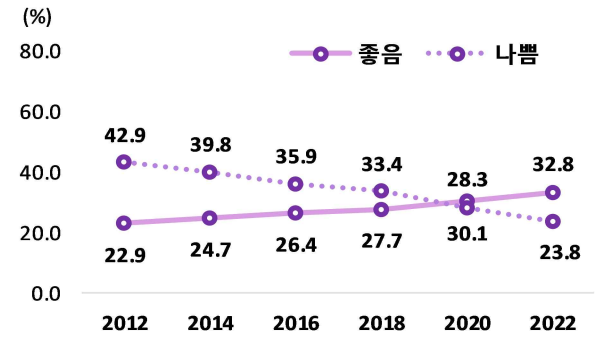
2. 건강평가 및 건강관리

'22년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65~74세는 32.8%, 75세 이상 18.9%이고, 10년 전보다 9.9%p, 5.2%p 각각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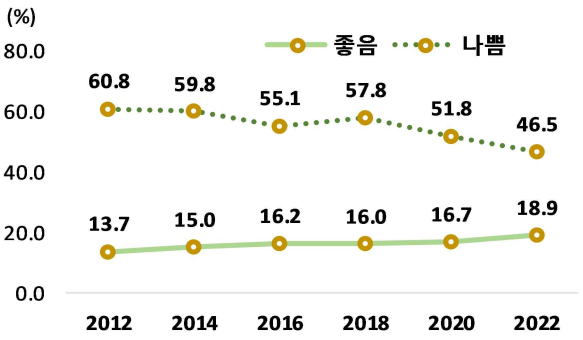
□ **(건강평가)** '22년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는 각각 32.8%, 18.9%임

○ 10년 전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5~74세 9.9%p, 75세 이상은 5.2%p 증가한 반면, 나쁘다는 생각은 감소함

< 건강평가 (65~74세) >



< 건강평가 (75세 이상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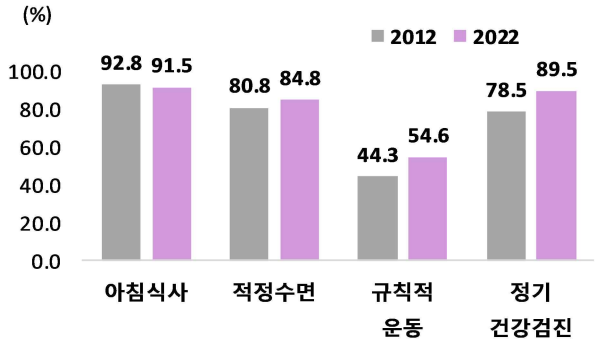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「사회조사」
주1) '좋음'은 매우 좋음과 좋은 편의 합계, '나쁨'은 나쁜 편과 매우 나쁨의 합계

□ **(건강관리)** '22년 65~74세는 건강관리를 위해 아침식사(91.5%), 정기 건강검진(89.5%)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, 75세 이상 고령자는 아침식사(93.6%), 정기 건강검진(82.3%)을 실천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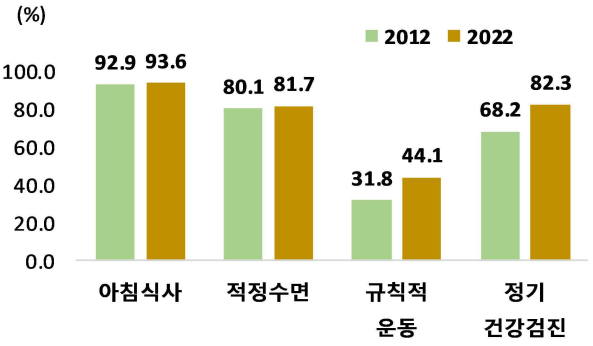
○ 65~74세가 75세 이상 고령자보다 규칙적 운동, 정기 건강검진, 적정수면 실천율이 높았음

○ 10년 전보다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 모두 정기 건강검진, 규칙적 운동, 적정수면 실천율이 증가함

< 건강관리 실천율 (65~74세) >



< 건강관리 실천율 (75세 이상) >



자료: 통계청「사회조사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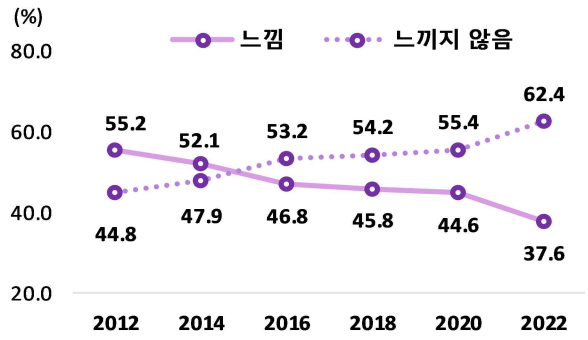
3. 스트레스 정도

'22년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65~74세는 37.6%, 75세 이상은 33.2%이며, 10년 전보다 17.6%p, 15.8%p 각각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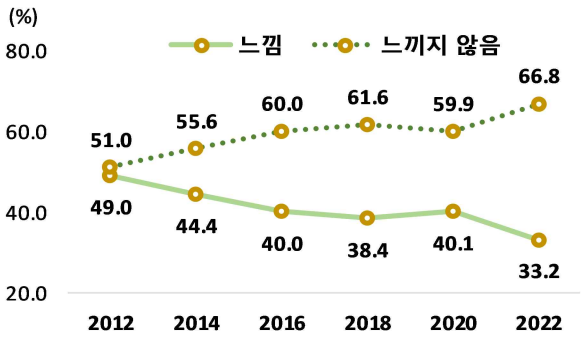
□ **(스트레스 정도)** '22년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는 각각 37.6%, 33.2%임

○ 65~74세는 75세 이상보다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으나, 10년 전보다 65~74세는 17.6%p, 75세 이상은 15.8%p 각각 감소함

< 스트레스 정도 (65~74세) >



< 스트레스 정도 (75세 이상) >



자료: 통계청「사회조사」
주1) '느낌'은 매우 느낌과 느낀 편의 합계, '느끼지 않음'은 느끼지 않는 편과 매우 느낌의 합계

Ⅲ. 노동 · 일자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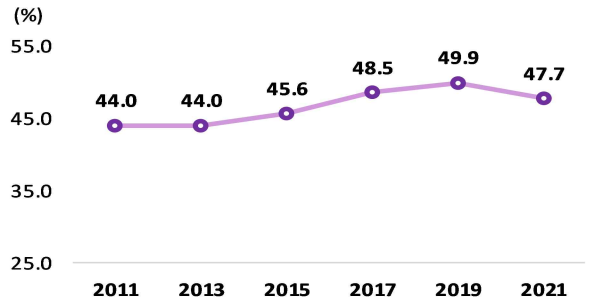
1. 고용안정성 및 근로조건 만족도

'21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65~74세의 47.7%, 75세 이상의 36.4%는 현재 직장에서 고용안정성을 느끼고 있고, 10년 전보다 3.7%p, 5.2%p 각각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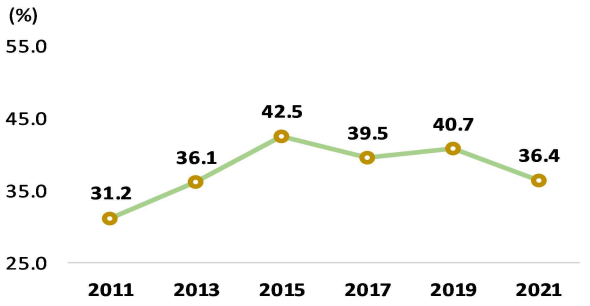
□ **(고용 안정성)** '21년 5월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65~74세 고령자의 47.7%, 75세 이상 고령자의 36.4%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고용안정성을 느낌

○ 65세~74세 고령자가 75세 이상 고령자보다 고용안정성을 느끼는 비중이 높았으며, 10년 전보다 65~74세는 3.7%p, 75세 이상은 5.2%p 증가함

< 고용 안정성 (느낌, 65~74세) >



< 고용 안정성 (느낌, 75세 이상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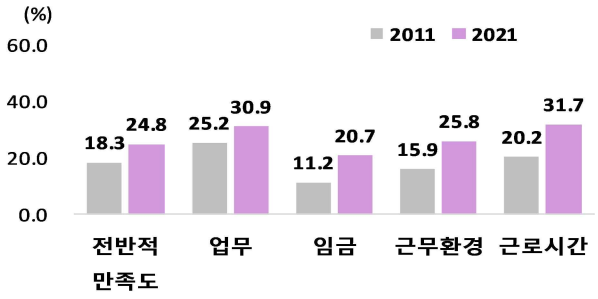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「사회조사」
주1) 각 년도 5월,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취업자 대상

□ **(근로조건 만족도)** '21년 5월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각각 24.8%, 35.4%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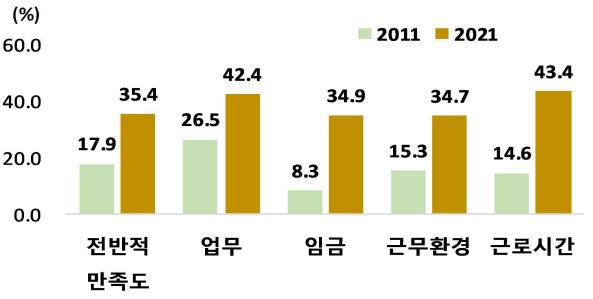
○ 75세 이상 고령자가 65세~74세 고령자보다 임금, 근로시간, 업무 등의 근로조건에 만족하는 비중이 높았음

○ 10년 전보다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 모두 업무, 임금, 근무환경,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만족하는 비중은 증가함

< 근로조건 만족도 (65~74세) >



< 근로조건 만족도 (75세 이상) >



자료: 통계청「사회조사」,
주1) 각 년도 5월,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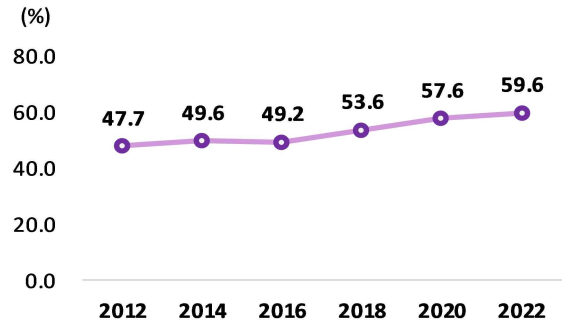
2.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사유

'22년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65세~74세, 75~79세 고령자는 각각 59.6%, 39.4% 이며 10년 전보다 10%p 이상 증가하였고,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가장 높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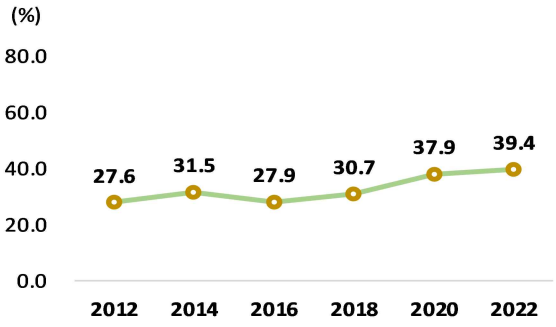
□ **(취업 의사)** '22년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65~74세 고령자는 59.6%이고, 75~79세 고령자는 39.4%이며, 10년 전보다 각각 11.9%p, 11.8%p 증가하였음

○ 장래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 비중은 65~74세 고령자가 75~79세 고령자보다 20%p 내외 더 높았음

< 취업 의사 (65~74세) >



< 취업 의사 (75~79세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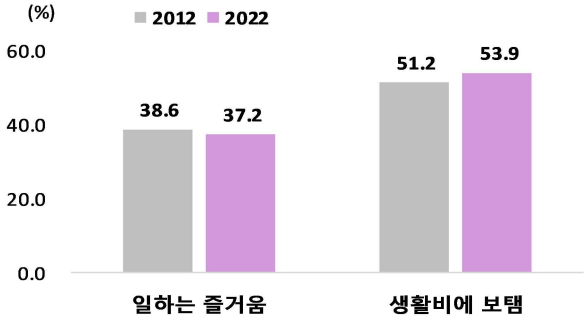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「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」, 각년도 5월,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직접 집계하여 산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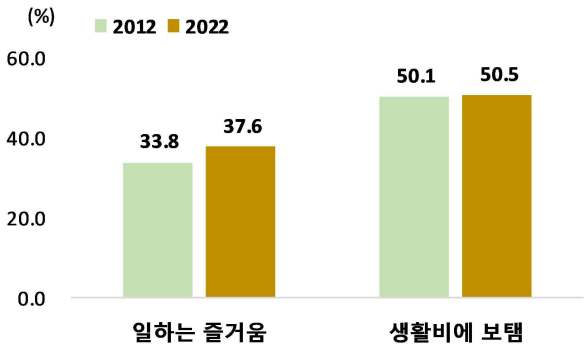
□ **(취업을 원하는 사유)** '22년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의 취업을 원하는 사유는 65~74세, 75~79세 고령자 모두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

○ 10년 전보다 65~74세 고령자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2.7%p 증가한 반면, 일하는 즐거움은 1.4%p 감소하였으며, 75~79세 고령자는 일하는 즐거움이 3.8%p, 생활비에 보탬은 0.4%p 증가하였음

< 취업을 원하는 사유 (65~74세) >



< 취업을 원하는 사유 (75~79세) >



자료: 통계청「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」, 각년도 5월,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직접 집계하여 산출

3. 일자리 선택기준 및 희망 일자리 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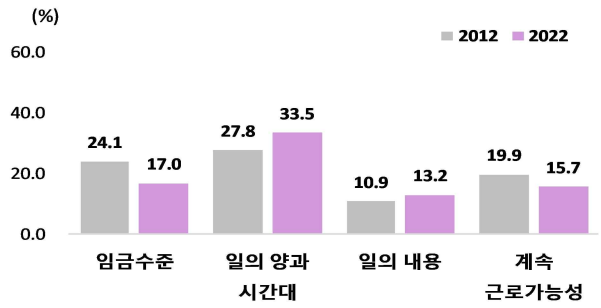
'22년 65세~74세, 75~79세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가 각각 33.5%, 43.1%로 가장 높았고, 희망 일자리 형태는 시간제 근로임

□ **(일자리 선택기준)** '22년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기준은 65~74세는 일의 양과 시간대 33.5%, 임금수준 17.0%이며, 75~79세는 일의 양과 시간대 43.1%, 일의 내용 13.9% 순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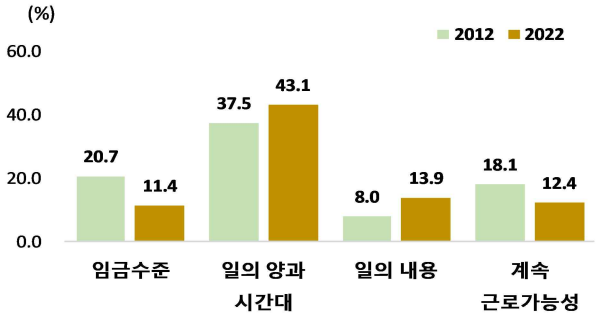
○ 75~79세는 65~74세보다 일자리 선택기준으로 일의 양과 시간대가 더 높았으나, 임금수준, 계속근로 가능성은 낮았음

○ 65~74세, 75~79세 고령자 모두 10년 전보다 일의 양과 시간대, 일의 내용은 증가한 반면, 임금수준, 계속 근로 가능성은 감소하였음

< 일자리 선택기준 (65~74세) >



< 일자리 선택기준 (75~79세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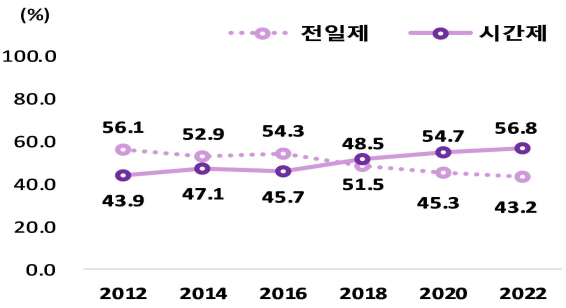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「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」, 각년도 5월,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직접 집계하여 산출

□ **(희망 일자리 형태)** '22년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자의 희망 일자리 형태는 65~74세의 56.8%, 75~79세의 79.7%는 시간제 근로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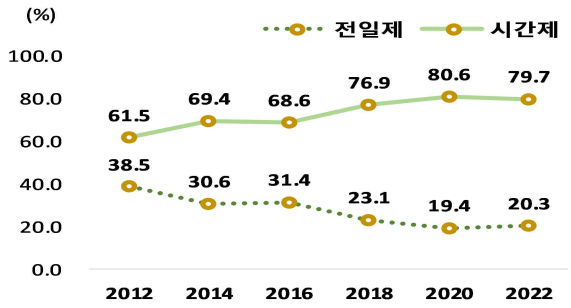
○ 65~74세는 75~79세 고령자보다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았음

○ 10년 전보다 65~74세, 75~79세 고령자 모두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은 감소하였고,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비중은 증가하였음

< 희망 일자리 형태 (65~74세) >



< 희망 일자리 형태 (75~79세) >



자료: 통계청「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」, 각년도 5월,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를 직접 집계하여 산출

Ⅳ. 소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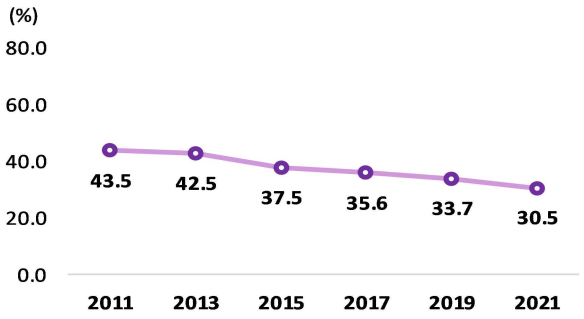
1. 상대적 빈곤율 및 주관적 소득수준

'21년 상대적 빈곤율은 66세~75세 30.5%, 76세 이상 51.4%로 10년 전보다 13.0%p, 3.9%p 감소하였으나, 실제 소득수준이 부족하다는 가구는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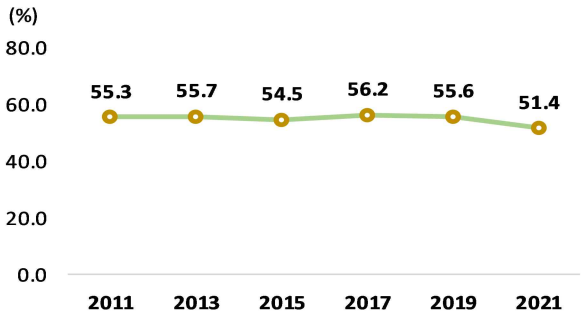
□ **(상대적 빈곤율)** '21년 66~75세, 7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각각 30.5%, 51.4%임

○ 10년 전보다 66~75세, 76세 이상 고령자 모두 상대적 빈곤율은 감소하였으나, 66~75세 고령자와 7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 격차는 확대됨

< 상대적 빈곤율 (66~75세) >



< 상대적 빈곤율 (76세 이상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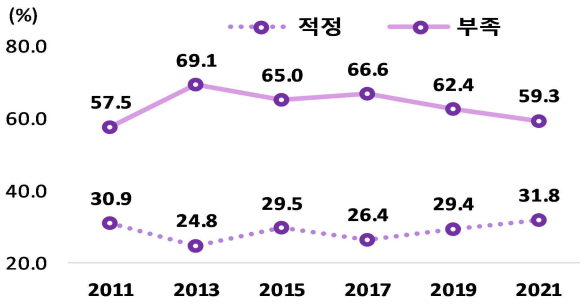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「가계금융복지조사」
주1)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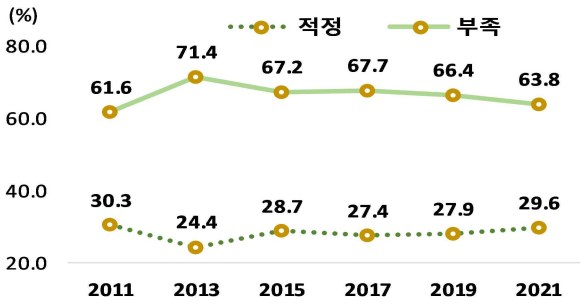
□ **(주관적 소득수준)** '21년 평균 생활비와 비교하여 실제 소득수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65~74세, 75세 이상 가구는 각각 59.3%, 63.8%임

○ 75세 이상 가구가 65~74세 가구보다 소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높았고, 10년 전보다 65~74세, 75세 이상 가구 모두 소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증가함

< 주관적 소득수준 (65~74세) >



< 주관적 소득수준 (75세 이상) >



자료: 통계청「사회조사」
주1) 가구주 연령 기준
주2) '부족'은 매우 부족과 약간 부족의 합계

2. 생활비 마련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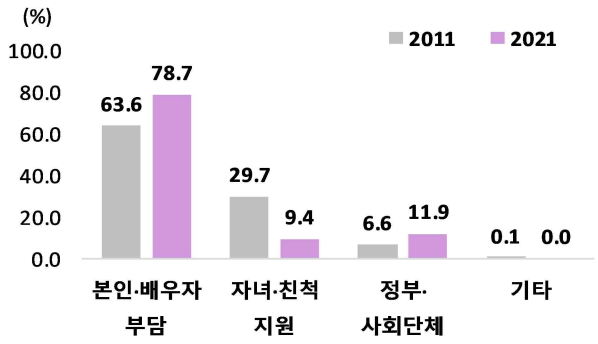
'21년 65~74세의 78.7%, 75세 이상의 46.0%는 본인·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며, 마련 방법은 65~74세는 근로·사업소득, 75세 이상은 연금·퇴직급여가 가장 많았음

□ **(생활비 마련 방법)** '21년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의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·배우자 부담이 각각 78.7%, 46.0%로 가장 높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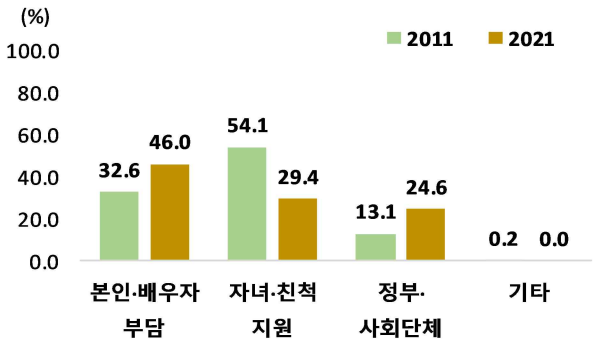
○ 65~74세는 75세 이상보다 본인·배우자 부담 비중이 높은 반면, 자녀·친척 지원, 정부·사회단체 지원은 낮았음

○ 10년 전보다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 모두 본인·배우자, 정부·사회단체 지원은 증가하였으며, 자녀·친척 지원은 감소함

< 생활비 마련 방법 (65~74세) >



< 생활비 마련 방법 (75세 이상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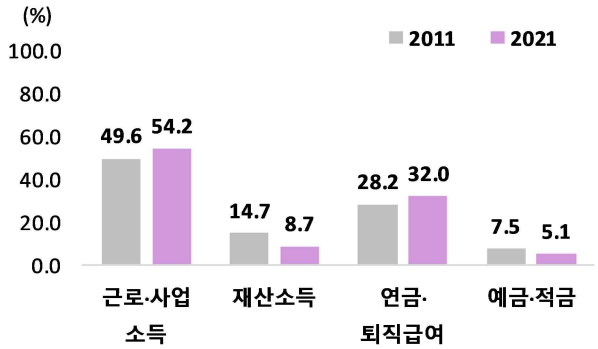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「사회조사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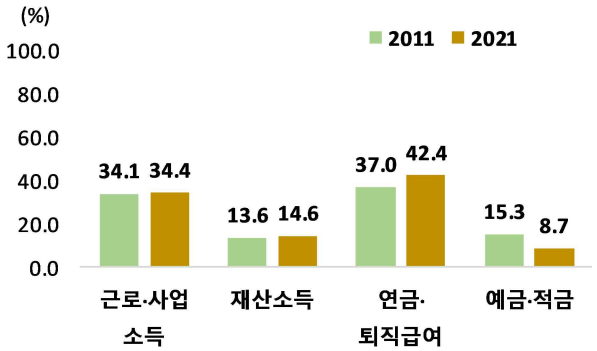
□ **(본인·배우자 생활비 마련 방법)** '21년 본인·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, 65~74세는 근로·사업소득(54.2%)이 가장 높았으며, 75세 이상은 연금·퇴직급여(42.4%)가 가장 높았음

○ 10년 전보다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 모두 연금·퇴직급여, 근로·사업소득은 증가한 반면, 예금·적금은 감소함

< 본인·배우자 생활비 마련 방법 (65~74세) >



< 본인·배우자 생활비 마련 방법 (75세 이상) >



자료: 통계청「사회조사」

3. 공적연금 수급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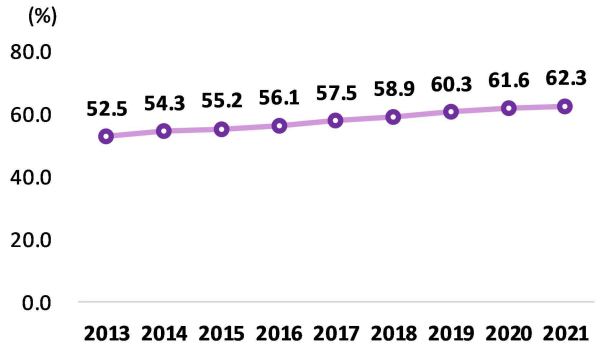
'21년 공적연금 수급률은 65~74세 62.3%, 75세 이상 45.1%이고, 8년 전보다 9.8%p, 27.0%p 증가하였음

□ **(공적연금 수급률)** '21년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각각 62.3%, 45.1%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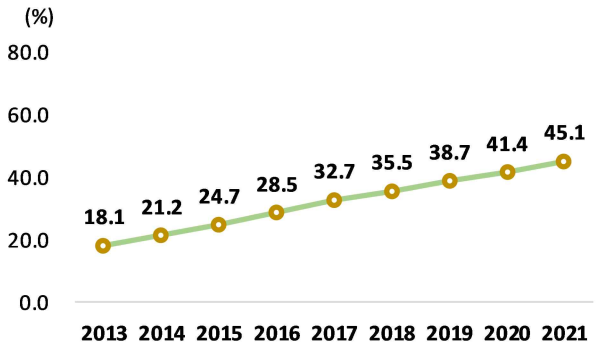
○ '13년 이후 65~74세, 7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은 지속 증가하였으며, 65~74세 수급률이 75세 이상보다 높았고, '13년 이후 차이는 감소

* 8년 전보다 공적연금 수급률은 65~74세 9.8%p, 75세 이상 27.0%p 증가함

< 공적연금 수급률 (65~74세) >



< 공적연금 수급률 (75세 이상) >



자료: 국민연금공단「국민연금통계연보」, 공무원연금공단「공무원연금통계집」,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「사학연금통계연보」, 국방부「군인연금통계연보」, 통계청「장래인구추계: 2020~2070년」

주1) 수급률= 연령별 공적연금 수급자수 ÷ 연령별 추계인구 × 100(%)

Ⅴ. 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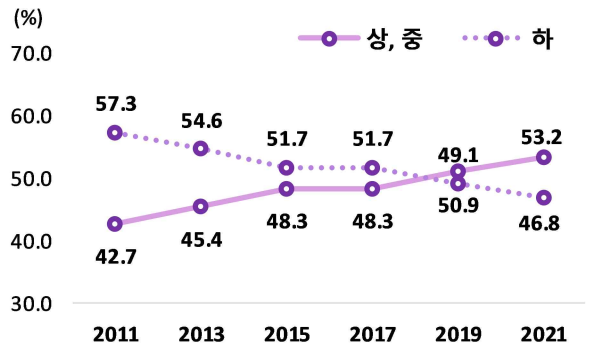
1. 계층의식, 사회단체 참여율

'21년 자신의 사회·경제적 지위가 '상' 또는 '중'이라고 생각하는 65~74세는 53.2%, 75세 이상은 41.0%로 10년 전보다 10.5%p, 6.1%p 각각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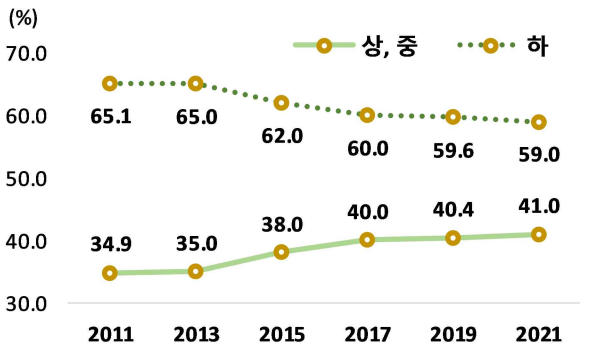
□ **(계층의식)** '21년 자신의 사회·경제적 지위가 '상' 또는 '중'이라고 생각하는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는 각각 53.2%, 41.0%임

○ 10년 전보다 자신의 사회·경제적 지위가 '상' 또는 '중'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65~74세 10.5%p, 75세 이상 6.1%p 증가하였고, '하'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감소함

< 계층의식 (65~74세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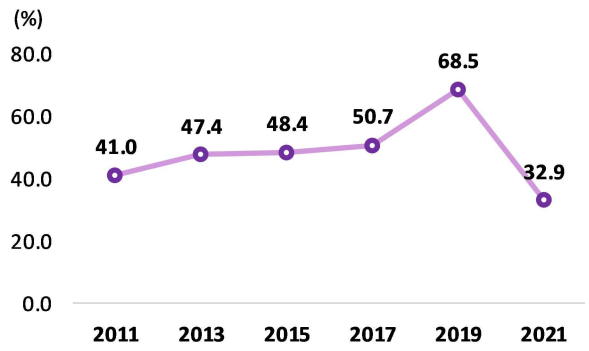
< 계층의식 (75세 이상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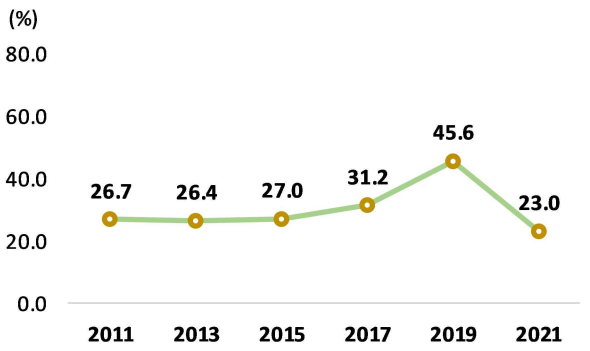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「사회조사」

□ **(사회단체 참여율)** '21년 지난 1년간 친목·사교, 취미활동, 종교단체 등의 단체활동에 참여한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는 각각 32.9%, 23.0%임

< 사회단체 참여율 (65~74세) >



< 사회단체 참여율 (75세 이상) >



자료: 통계청「사회조사」
주1) 2019년부터 기존 참여단체 3개 선택형 문항에서 참여단체 전체 선택으로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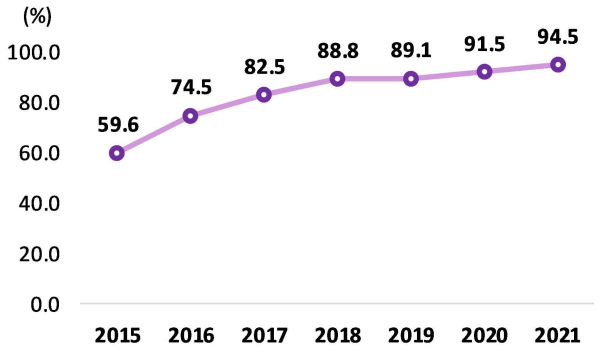
2. 인터넷 이용률, 자원봉사 참여

'21년 인터넷 이용률은 60대 94.5%, 70대 이상은 49.7%로 '15년보다 34.9%p, 31.8%p 각각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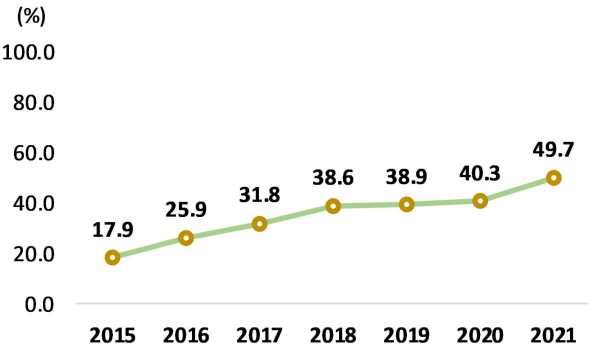
□ **(인터넷 이용률)** '21년 60대의 인터넷 이용률을 94.5%이고, 70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을 49.7%임

○ 60대는 70세 이상보다 인터넷 이용률이 약 2배 높았으며, 60대와 70세 이상 모두 '15년보다 34.9%p, 31.8%p 증가함

< 인터넷 이용률 (60대) >



< 인터넷 이용률 (70세 이상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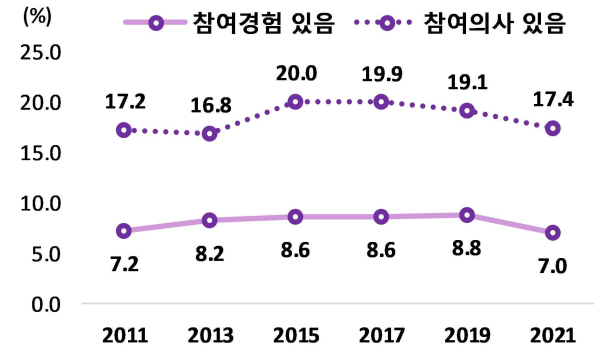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「인터넷이용실태조사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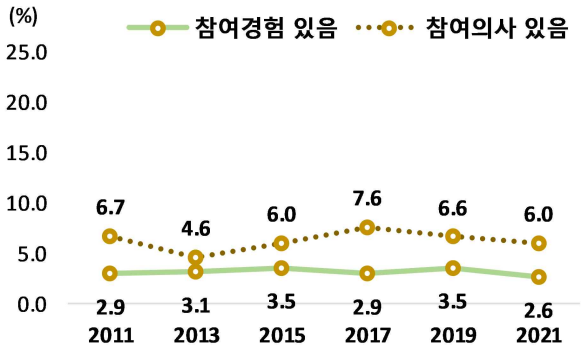
□ **(자원봉사)** '21년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경험이 있는 65~74세, 75세 이상은 각각 7.0%, 2.6%이고, 향후 1년 이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는 각각 17.4%, 6.0%임

○ 65~74세는 75세 이상 고령자보다 자원봉사 참여 경험률 및 향후 참여 의사 모두 높았음

< 자원봉사 활동 (65~74세) >



< 자원봉사 활동 (75세 이상) >



자료: 통계청「사회조사」

Ⅵ. 노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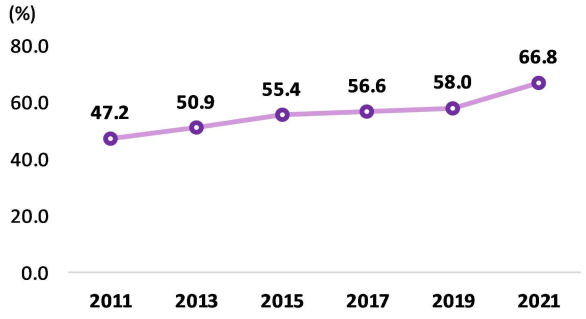
1. 노후 준비 및 방법

'21년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65~74세는 66.8%, 75세 이상은 42.7%이고, 준비 방법은 공적연금이 가장 많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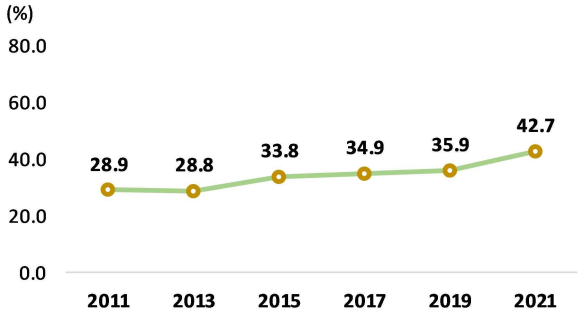
□ **(노후 준비)** '21년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65~74세는 66.8%이고, 75세 이상 고령자는 42.7%임

○ 10년 전보다 모두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비중은 65~74세는 19.6%p, 75세 이상은 13.8%p 증가함

< 노후 준비 (준비함, 65~74세) >



< 노후 준비 (준비함, 75세 이상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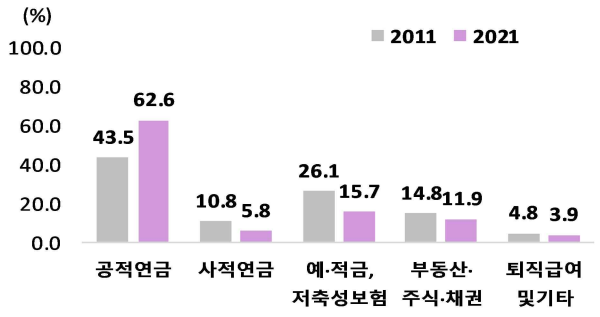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「사회조사」

□ **(노후 준비 방법)** '21년 노후 준비 방법은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 모두 공적연금이 각각 62.6%, 52.9%로 가장 높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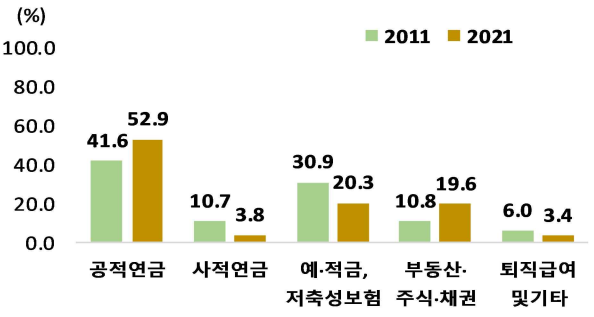
○ 65~74세는 75세 이상 고령자보다 공적연금, 사적연금 비중이 높았고, 부동산·주식·채권, 예·적금 및 저축성 보험 비중은 낮았음

○ 10년 전보다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 모두 공적연금은 증가하였고, 사적연금, 예·적금 및 저축성 보험은 감소하였음

< 노후 준비 방법 (65~74세) >



< 노후 준비 방법 (75세 이상) >



자료: 통계청「사회조사」
주1) '공적연금'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합계, 2021년은 '부동산·주식·채권'에 주택연금 포함

2.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, 선호 장례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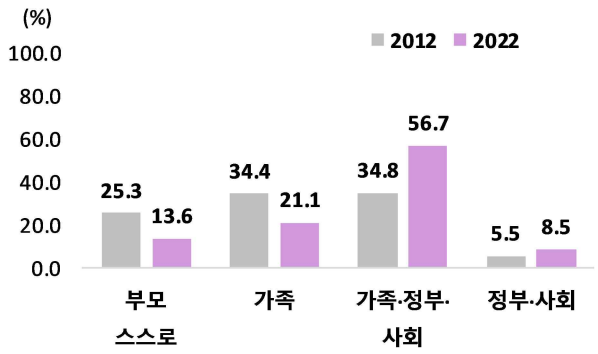
'22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부모부양은 가족·정부·사회의 책임, '21년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 65~74세의 85.8%, 75세 이상의 75.8%가 화장을 선택함

□ **(부모부양)** '22년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는 부모부양에 대해 가족·정부·사회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각각 56.7%, 52.0%로 가장 높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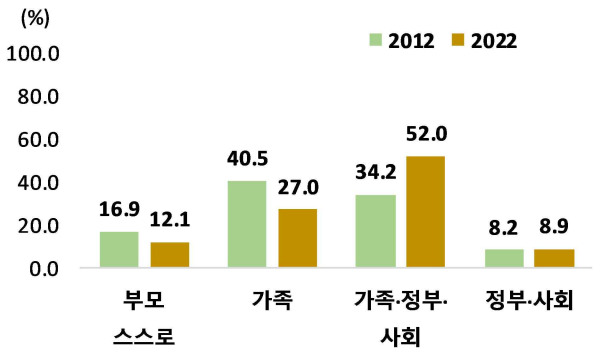
○ 65~74세 고령자는 75세 이상 고령자보다 부모 스스로 해결, 가족·정부·사회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높은 반면, 가족의 책임이라는 생각은 낮았음

○ 10년 전보다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 모두 부모 노후를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비중은 지속 감소함

<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(65~74세) >



<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(75세 이상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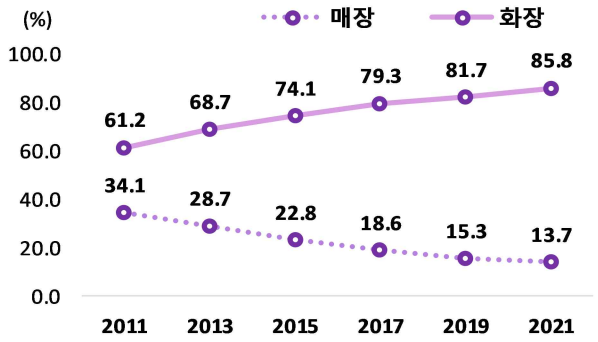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「사회조사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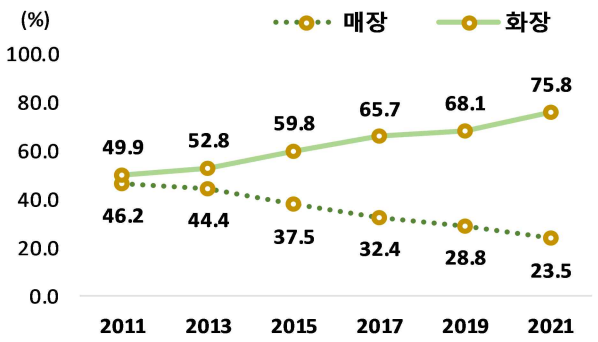
□ **(선호 장례 방법)** '21년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 화장을 선택한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는 각각 85.8%, 75.8%임

○ 10년 전보다 65~74세, 75세 이상 고령자 모두 화장을 선택한 비중은 지속 증가함

< 선호 장례 방법 (65~74세) >



< 선호 장례 방법 (75세 이상) >



자료: 통계청「사회조사」